

일의 기본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해오다



동신관유리공업(주) 서정섭 전(前) 회장은 퇴임했지만 회사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무실을 찾는다.

서정섭 동신관유리공업(주) 전(前) 회장은 올해로 팔십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1937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한국전쟁, 정치·경제·사회적인 격변을 두루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시절과 세월에 대해 일과 사람이라 짧게 정의한다. ‘일이 좋았고 사람이 좋아, 어렵고 힘들어도 버텼고 이겨냈다’고 회상했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편안하게 쉬면 좋으련만 그는 여전히 일에 대한 관심과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젊은 시절의 패기와 열정을 아낌없이 쏟을 텐데 지금 그는 본의 아니게 속도를 늦추며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보고 더 멀리 내다보게 되었다.

건강의 적신호를 통해 깨닫게 된 아픔과 고통

“70대 초반 무렵이었죠. 새벽에 잠이 깨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천장이 돌아가고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전까지는 몸이 아프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해 봤어요. 감기, 몸살로 짧게 앓기만 했을 뿐 건강에 문제가 생겼구나 싶은 순간은 없었지요. 집 근처 병원에 갔는데 나아

질 기미가 안 보여 서울아산병원을 찾게 되었죠. 그게 서울아산병원과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당시 서정섭 회장은 부정맥이 심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살면서 처음 겪은 건강의 적신호라 적잖이 놀랐다. 그럼에도 그 당시 의료진이 전했던 ‘혈관과 심장도 나이가 들어서 생긴 문제이니 잘 관리하면 괜찮아진다’는 말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의 검사와 치료를 마치고, 다시 집 근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지냈다. 그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던 중 2019년 건강종합검진에서 아내가 채장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아내는 70대 후반이었고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나이가 있으니 수술을 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는데 이번에도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함께 해보기로 결정했고, 다행히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아내는 항암 치료도 잘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5월 재발했습니다. 2년 동안 잘 지내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지요.”

아내 홍성연 씨는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고 다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많은 암 환자와 가족이 겪는 아픔과 고통, 절망과 포기 순간을 서정섭 회장 가족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지나온 시간이

그렇듯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믿음과 희망 때문이다.

한편론 이 시간을 통해 주변을 더욱 돌아보게 되었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사람에게 건강의 문제까지 생긴다면 감당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던 서정섭 회장과 아내 홍성연 씨는 이러한 환자들을 돕고자 서울아산병원에 후원을 결정했다.

사실 그의 이런 결정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복지 시설과 주변 학교에 후원을 하고 있고,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이기도 하다.

“몸이 아프데 돈이 없어서 치료 받지 못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부를 무슨 대단한 결심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일은 될 때까지 해보면 되는데 아내가 아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치료조차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귀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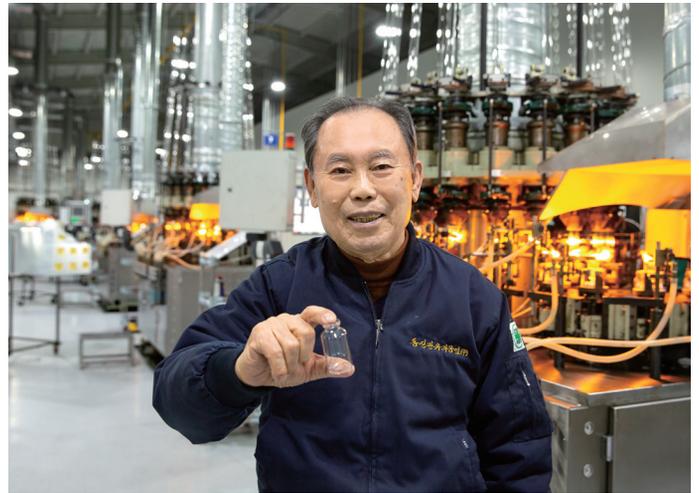
서정섭 회장은 1969년 동신관유리공업을 창업했다. 제약회사를 다니며 배웠던 기술과 경험을 살려 시작한 사업이었다. 말이 사업이지 의료용 앰플을 만드는 기계 한 대가 전부였다. 당시 의료용 앰플은 일일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졌다. 자동화 생산이 가능한 기계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라 온전히 사람의 노력과 정성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인의 소개로 기계를 구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전 회사에서 기술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일했으니 기계를 어떻게 다룰지 난감했다.

그렇지만 어깨너머로 봤던 기억과 끝까지 해내고 마는 의지가 결합이 되니 결국 해법을 발견했고, 창업 2년 만에 자동화된 앰플 생산에 이를 수 있었다.

특히 의료용 앰플은 일정한 규격과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되니 불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사용 유리용기인 바이알에도 도전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과 기계가 있다면 일본, 독일, 미국 등 세계 곳곳을 한걸음에 달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봤다.

“사업 초창기에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추억이지만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물어볼 데도 없고, 결국 될 때까지 해본다는 마음으로 일했죠. 그리고 일은 사람이 한다,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1975년 공장을 새로 지을 때 기숙사와 식당부터 만들



동신관유리공업 청라공장에서 생산한 주사용 유리용기인 바이알을 소개하는 서정섭 회장.

었습니다. 기숙사엔 연탄보일러 대신 기름보일러를 넣고요. 당시엔 연탄보일러 가스 유출로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변치 않는 원칙은 될 때까지 해보는 것, 그리고 그건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서정섭 회장의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인천 청라지역에 새 공장을 지은 것도 더 좋은 제품을, 더 좋은 환경에서 만들겠다는 그의 원칙이 반영된 결과다.

그는 원리원칙을 준수해 일의 기본을 지키며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그와 동신관유리공업을 있게 한 힘이라 강조한다.

“일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매번 실패하는데 다시 도전하는 마음을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에디슨의 말을 생각합니다. 아흔아홉 번 실패하자, 아흔아홉 가지 안 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한 가지 되는 방법만 찾으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온 뚝심의 외길은 세상에 작은 빛을 발하고 있다. 동신관유리공업에서 만든 바이알이 코로나19 백신을 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과 시련을 겪고 있는 요즘, 감염의 확산을 막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있어 그를 비롯한 회사 사람들 모두 일하는 데 절로 힘이 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비로소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는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한다. 자신에게 허락된 건강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며 더 멀리 더 깊이 세상을 바라본다. **글 김지영**